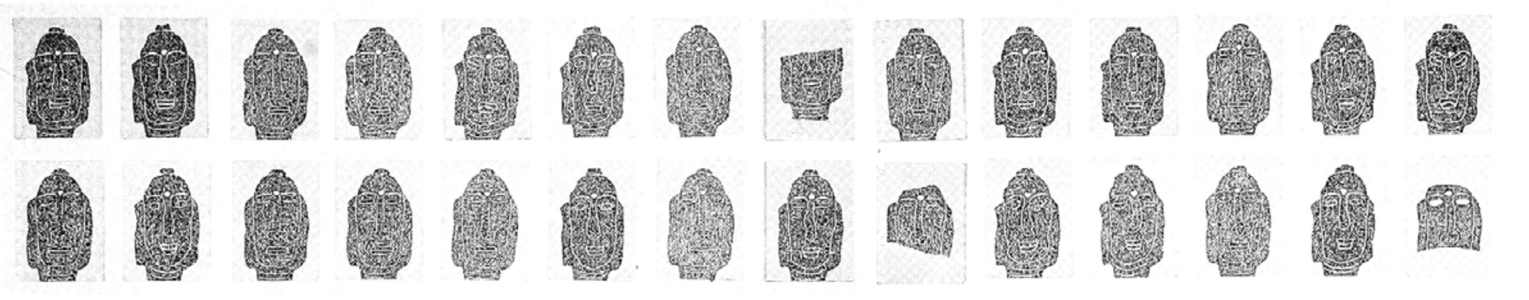

"千佛에 한국인 얼굴 있다"

장백씨 '천불전' 9~13일 충주문화회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느낌이 풍부한 것이 불상의 표정이다. 어느 불상이나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는 공통이지만 보는 느낌에 따라, 각도에 따라, 빛의 밝기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웃는 듯, 행복에 겨운 듯, 우는 듯, 찡그리는 듯, 초탈한 듯, 놀란 듯, 성내는 듯 온갖 희로애락을 담고있는 각기 다른 표정의 천개의 부처님얼굴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9~13일 충주문화회관(0441-847-7228)에서 개최되는 장백씨의 '천불(千佛)전'.

이 얼굴들은 섬세하고 신비로운 신라불상의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가장 못 생긴 불상이라는 운주사의 투박한 불상의 얼굴을 소재로 응용했다.

흑백의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된 이 불상들은 광목을 구겨 편 후에 물감붓으로 가볍게 터치를 가해 돌의 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언터치 페인팅'이라는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해 마치 탁본이나 판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운주사의 투박한 불상을 소재로 했지만 경주 남산 아기부처님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이나, 서산마애삼존불의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까지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장백씨가 불상얼굴들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입니다. 그 해탈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5년동안 불상의 얼굴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운주사 석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랜 풍상을 겪으면서 마모되어가며 축적된 아름다움이 있고 또 어리숙하면서도 고졸한 한국인만의 소박한 미가 느껴져 더없이 정겹고 친근합니다. 불상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얼굴이 곧 한국인의 얼굴임을 알 수 있지요."

장백씨는 돌부처에서 한국인의 원형을 본다. 85년부터 '고통'시리즈와 이후의 '날개'시리즈를 하다 일체의 번뇌와 상념,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해탈을 꿈꾸고 부처의 마음을 찾겠다는 염원이 불상 그리기 작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석불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운주사 석불에서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미소와 근심과 공포를 무너뜨리는 친밀한 침묵을 느꼈다고 한다.

장백씨는 앞으로 전국 각처의 장승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천(千)장승전'과 천개의 탑의 모습들을 묘사한 '천(千)탑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7〉

모두가 다 불경

猿啼虎嘯鶴梳翎 (원제호소학소령)	원숭이 울음, 범 휘파람, 학 날개의 빗질
正眼看來摠是經 (정안간래총시경)	바른 눈의 살핌에는 볼수록 모두가 진리
菩薩神通何處在 (보살신통하처재)	보살의 신령한 회통 어디에 있나
落花飛盡舞청정 (낙화비진무청정)	지는 꽃 다 날리면 또 춤추는 나비.

연파대사(蓮坡大師, 1772~1811)의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혜장(惠藏)이고 자는 무진(無盡)이요, 연파는 법호이다. 또 하나의 자호를 아암(兒庵)이라 하여 〈아암유집·兒庵遺集〉이란 유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대사의 비명을 다산 정약용이 썼는데 이는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갔을 때 하루 밤에 주역을 가지고 대담하면서, 대사의 깊은 논리에 감복되어 그뒤로 막역한 사이가 되어 그 인연으로 해서 썼던 것이다. 다산이 비명을 쓰면서 이 하룻밤의 느낌을 "정신으로 융통하였고 입에 발려서 한 번에 수 천 마디를 외우는 것이 마치 쇠탄환이 쇠관에 구르듯 하였다(神融口慣 一誦數十百言 如流丸轉坂)" 하였으니, 잠깐의 만남에서 평생의 지기로 인정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대사의 시는 개별적 제목 없이, 쓰여진 계기로 엮여 있다. 위의 시는 산거잡흥(山居雜興) 20수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장춘동잡시(長春洞雜詩)' 12수도 있는데, 이 시가 중국에 전해져 당시의 대학자 옹방강(翁方綱)이 시인을 하나 얻었다 하여 추사 김정희가 사신으로 갔을때 자신의 시집 6책, 손수 쓴 〈금강경〉 한 권, 초상화 한 벌을 부쳐온 일이 있었으니, 대사의 시문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이해하게 한다.

이 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물 어디에나 있는 것을 상징화했다. 원숭이의 울음 호랑이의 외침 그 자체가 자연의 실상이요, 외발로 서서 깃털에 빗질하는 학의 자태도 자연의 본연이요 또한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꽃이 지면 벌 나비의 날음이 없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는 다시 잠자리의 아름다운 비상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실상이요, 법체의 여여한 현현이니, 이것이 바로 경전의 진리이다. 그러나 정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개체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법체의 진리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 바른 깨달음의 바른 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융회관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사물의 실상에 있는 것이다. 이 실상을 바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수선의 자세가 아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사의 수선적 자세를 보게 된다.

시는 또 시대로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 원숭이, 범, 학, 꽃, 잠자리 등이 자연스럽게 한 편의 시의 공간으로 모이고 있다. 인위적 흔적이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14일 발표

조계사 대웅전 김수철씨 작곡

◇김수철씨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주제로 한 음악이 완성돼 14일(목) 오후 3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 및 발표회를 갖는다. 가수겸 작곡가 김수철씨(41)가 작곡, 제작한 팔만대장경 음악 〈본지 119호 13면 참조〉은 민족의 성보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표현, CD와 카세트테이프로 나왔다.

'고려대장경'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CD는 팔만대장경의 태동부터 수난, 이운, 현재와 전산화가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까지 담은 연주시간 45분의 음악. 장중하면서도 심오한 선율의 우리 국악기와 경쾌하면서도 활기찬 서양악기, 중국악기까지 사용하여 동 서양의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 특징이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직후 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로부터 작곡의뢰를 받아 2년여만에 음악으로 완성한 김수철씨는 "부처님 가르침이 집대성된 고려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숨결과 이를 만든 우리 민족의 슬기를 깊이있고 다양한 선율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꽃사진 보며 청정심 찾았으면"

13일 연꽃전 여는 선암스님

'연꽃 사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스님이 선암스님(봉원사 사회부장)일 정도로 27년간 연꽃을 집중적으로 렌즈에 담아온 선암스님이 13일부터 19일까지 안국동 동덕 갤러리에서 연꽃사진전을 갖는다.

"연꽃을 찍는 일은 구도행각의 한 방편입니다. 연꽃은 단순히 불교를 상징하는 꽃을 넘어 진리와 순수, 즉 인간의 청정하고 맑은 본성을 상징합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이 혼탁한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본래의 진리와 순수한 마음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렌즈를 통해 추구하는 나의 사진작업의 목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시연꽃 등 희귀한 연꽃들과 연꽃의 사계, 수련 등 국내 외 60여점의 다양한 연꽃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선암스님의 연꽃을 찾는 행각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태국 스리랑카 일본 미얀마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꽃을 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가르침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는 선암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맞춰 200쪽의 칼라사진집 '蓮'도 펴 낸다.

선암스님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사진에도 독보적인 존재이다. (02)392-3007

〈숙〉

"美 스나이더의 詩세계 인간과 자연의 相生 담아"

'불교와 문화' 5호서 조명

시의 패턴을 선에 두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노래하는 시인. 단순한 자연에의 귀의가 아닌 인간 본연에의 복귀로서 구도정신을 지향하는 시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69세).

최근 발간된 계간지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刊) 제5호는 '선을 노래하는 무성(無性)의 시인'이란 호칭으로 게리 스나이더를 조명했다.

게리 스나이더는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미국 현역 시인이다.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10년간 참선 공부를 하는 등 선불교에 심취한 그는 그 영향으로 빛/어둠, 추위/더위, 생명/죽음 등의 상호적 의미관련을 중시하면서, 자연이 보여주는 총제적인 생명의 긴장과 대립과 조화의 관계에 늘 주목한다. 〈오지〉 〈쇄석(碎石)〉 〈신화와 텍스트〉 등을 비롯해 가장 최근의 시집 〈무성(無性)〉까지 그의 모든 시집에서 이같은 시각이 나타나 있다.

김영무교수(서울대 영문학)는 우주 삼라만상의 긴밀한 연대성과 관계성을 새로이 깨닫고,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화할 때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상생(相生)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의 탁월한 실천가가 바로 스나이더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생활이 곧 시고 시가 곧 선(禪)인 시인'으로 불린다. 그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야심경과 다라니를 독송한다. 특히 불교의 명상은 자신의 시세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독특한 자세와 호흡법,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법이 있는 명상은 아주 특수한 수행임을 강조한다.

고은 시인은 "그는 고대 중국과 일본의 선과 시를 만났으며 이미 선농일치의 중국의 임제선 전통과 방불한 선로(禪勞)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말로 스나이더와 만났던 당시를 술회했다.

그는 현재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시낭독을 하고,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가 하면 자연환경 보호자들과 토착민들의 그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우〉

문화 단신

티베트 불교미술전
보성 백민미술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관장 조규일)이 2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티벳불교미술 특별전'을 갖는다.

전국에서 유일한 군립미술관으로 정식등록한 것을 기념해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다섯 차례에 걸쳐 티벳불교문화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것들이 선보인다. 티벳 왕궁화가인 샹게에쉬의 만다라와 여러 형태의 불·보살상, 손때가 묻은 밀교의식 법구, 인골피리와 두개골로 만든 가면 등에서 독특하면서도 오묘한 티벳 불교미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또 만년설을 배경으로 한 '옴'자 만다라, 정교하게 조각된 티벳불교 수호신장, 마음의 번뇌와 수행의 장애를 소멸시키는 상징물인 법구 등에서는 우리와는 또다른 티벳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네팔작가 10인전
9일까지 녹색갤러리

녹색갤러리에서는 9일까지 네팔 현대작가 10인전시회를 연다. 한국과 네팔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네팔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하레람 죠주 씨 등의 현대화 20점이 전시된다. (02)323-4941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선산 원각사
주 지 대 혜
부설: 원각불교교육원
■ 구미시 선산읍 노산리 159
TEL : 0546-481-2363

망 월 사
주 지 동 진
신 도 일 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번지
TEL : 0545-972-2700

대한불교 조계종 최정산 법계사
주 지 환 암
신 도 일 동
■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212-2
TEL : 053-768-2251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신도회
회 장 최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
TEL : 053-253-2886, 252-9485

금 용 사
주 지 혜 선
■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72
TEL : 053-628-5404

델리원제과
안 법 인
■ 대구시 달서구 본동 그린코아 지하상가내
TEL : 053-621-4315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고을)
이사장 오 정
■ 대구시 동구 진인동 151-1
TEL : 053-981-1552

대한불교 조계종 제석사
주 지 태 경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26-1
TEL : 053-852-2271

윤달에 수의를 구입하시면
삼베(염포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님다비행사일체
재가 장의 업무일체
이장및 석물제작
지장불교상조개발(주)
부설: 불교장의사
■ TEL 053-654-0055, 629-1024

여래기획
대 표 권기철
■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5-11
TEL : 053-426-3395